

참신성·재미 더한 임실군 SNS 인기

신규 공무원 기획·출연·제작 솜품 단기간 조회수 18만 돌파…뉴미디어팀 신선폰 효과 입증

임실군의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제작과 참여하여 만드는 SNS 솜품영상이 재미와 참신성을 더해 높은 조회수를 견인하며 군정 홍보에 독특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열정과 재치를 담아내 시의적절하게 업로드되는 영상들은 SNS 이용자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왜 이렇게 재밌냐”, “아 이템이 너무 좋다”는 등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3일 임실군에 따르면, 임실군은 새해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담당관 산하 뉴미디어팀을 신선폰했다. 짧은 감각과 SNS 트렌드를 적재적소에 반영하기 위해 팀장 및 팀원들은 모두 9급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다.

9급 팀원들의 활약은 SNS 영상 조회수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한 달여간 임실군의 주요 홍보 아이템인 2025 임실방문의 해와 고향사랑기부제, 이색공연인 몽골 친선 문화공연, 육정호 반려견 출입 시범운영, 삼계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애향장학금 등을 주제로 총 9개의



임실군의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제작과 참여하여 만드는 SNS 솜품영상이 군정 홍보에 독특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솜품 콘텐츠 및 일반영상을 선보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간 영상 조회수는 무려 18만1,000여회를 넘어서며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와 육정호 소형견 출입 시범운영, 애향장학금 홍보를 위해 이들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 제작해 만든 솜품 영상은 SNS 트렌드와 참신성, 재미까지 더해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봉어섬 소형 반려견 입장 시범운영을 주제로 만들어진 솜품영상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실감하듯 일주일 만에 조회수 2.9만회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2025 임실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영상 6.6만회, 삼계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3.6만회 등 기대 이상의 인기를 얻었다.

군은 오는 4월 5일과 6일 열릴 육정호 벚꽃축제를 앞두고도 참신하면서 행복과 웃음을 안기는 솜품영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외주에 의존하기 보다는 군정 소식에 밝은 공무원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솜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소식과 사계절 축제, 각종 행사 등을 알장사 홍보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SNS 온라인 홍보 시대에 맞게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담당관 산하 뉴미디어팀을 신선폰한 취지에 맞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된 다양한 군정 콘텐츠와 이벤트 등을 추진, 임실의 매력을 알리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며 “SNS의 높은 확산력을 활용해 임실방문의 해와 친만관광 임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물론 군정 소식들을 군민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봄을 알리는 복사꽃 만개

남원지역 시설하우스에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낸 복숭아 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남원지역 시설하우스에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낸 복숭아 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지역 장례식장·소상공인 업체와 협약식 가져

순창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청년문화센터 2층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 장례식장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협약 체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은 그동안 군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고를 기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우를 다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장제비를 치를 수 있도록 장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사망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급된 지

원금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된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은 지역 장례식장 업체와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장례식장 대표자들도 역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제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장제비 지원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군민들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싱싱생생 건강교실’ 성료

남원시보건소는 어르신들 최고의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올 2월 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남원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지역 주민의 건강원터 경로당에서 38명의 전문 체조강사가 주2회 근력강화 건강체조를 실시, 고령층 체력증진과 함께 겨울철 혹한기 홀로 계시는 고립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매년 260개소 경로당에서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총289개소가 참여해 보내 최다 규모였으며, 폭염 기간에는 운영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온

열질환을 집중관리하고, 동절기(12월~2월)에는 경로당 201개소에서 총 4,598회기 운영해 어르신 48,51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동절기에는 남원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단(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인력 47명)이 경로당을 방문, 독거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교육, 치매·우울증 관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기초건강 측정 등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는 등 촘촘한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에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에 나와 체조하면서 아픈 다리와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성과에 보건소는 동절기에 이어 연중 사업(3월~11월)추진을 위해 2월 초부터 496개소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신청한 86개 경로당에서 3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미주 치매안심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전주비전대, 대학지원체계 추진 협약 체결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남원시청에서 전주비전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

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식에서는 △지역 주력산업 성장을 위한 밀착형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상생 지·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운영을 협약했다.

이에 따라 전주비전대의 마용건강학과와 남원시 화장품 및 바이오 산업을 연계, 남원시에 3억 규모의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직업 교육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고자 2월 말로 계획된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2주 더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조류의 활동 범위 증가와 함께 과거 봄철에도 발생한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남원시는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축산종사자·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강화된 방역 기준 공고 8건도 2주간 연장되며,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이달 14일까지 지속한다.

또한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임시 거점 소독시설 2개소와 농장 통제초소 2개소를 연장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삼계면 뇌천마을 정신건강 교육 실시

임실군 보건의로원이 삼계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최근 뇌천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마을 주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의 이해 및 조현증 환자 응급 상황 시 대처 및 병원 연계 등에 관해 진행됐으며, 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검사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마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뇌천마을 심증무 이장은 “가까운 곳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이 있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는데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도 알려줘서 감사하다”며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각 마을별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소방서, 비상상황실 운영 훈련 실시

순창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소방서 비상상황실 운영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9 신고 폭주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상황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의 효율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순창소방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훈련 개시 전 상황 점검과 실제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황실의 통화 불가 처리 예고 및 시스템 점검도 이루어졌다. 또한, 훈련 중 실제 화재나 재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훈련을 중단하고, 훈련 중단 상황을 무전으로 전파하는 절차도 포함되었다.

윤종선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실 운영 절차와 신고접수 시스템을 점검하며, 실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